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 만들기 여수는 지금 ‘따뜻한 바이러스’가 넘친다

소외이웃 집수리·보급자리 마련
‘희망복지 지원단’ 활발한 활동
무료 관절수술·교복 나눔 등
여수산단 기업들도 적극 동참

여수시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추운 겨울동안 집중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까지 보살피는 실질적인 복지를 펼치고 있다.

◇2012년 희망복지 지원단 출범=여수시는 “지난 2012년 4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한 ‘희망복지 지원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 서비스 강화는 물론 복지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희망하우스와 희망의 보급자리 마련, 희망 날개교복나눔, 의지와 관절치료, 상안검치료 시술 등의 민·관협력 사업을 펼쳤다.

또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집수리 지원 등 민·관 협력 희망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여수시 27개 읍·면에 ‘복지 종합 상담창구’도 설치, 전화 한 통으로도 통합 복지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장 중심의 종합 상담창구가 활성화되면서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지역민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장재민 여수시 사회복지과장은 “분야별 기준을 잘 정리해 각종 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했다”며 “세대별 맞춤형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을 받지 못한 세대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을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긴급복지 지원과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갑작스런 사건·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민을 돕기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복지=여수 국가산단 주요 기업 등 지역기업들의 복지지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역기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여수시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2012년부터 눈꺼풀 처짐 현상으로 고생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상안검하수 회복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70여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여전NCC가 지난 2009년부터 소외 이웃을 위해 무료로 실시하는 무료관절 수술로 지금까지 115명의 지역민이 치료를 받았다.

또 삼성 SDI의 의치 지원 사업, 따뜻한 동지를 마련해 선물하는 GS칼텍스의 ‘희망하우스’ 지원사업, 롯데케미칼 등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희망날개 교복 나눔 캠페인’ 등이 이어지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서 6억1200여 만원을 모금, 전남도 최고 금액으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이는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상사업비 43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민간 기업과 함께 수준높은 통합 복지서비스를 구축해 온 여수시의 복지정책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우선 전남도가 올해 지역 복지 민간협력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여수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여수시가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섬희망 나눔 사업’이 올해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수시가 섬 주민들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사업은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문화 복지 서비스 등 지금까지 16개섬 700여 세대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수 종합복지관 등 2곳의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랑의 빨래방’ 지원과 농어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도 운영한다.

여수시 김보희 환경복지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을 위해 마련한 여수시의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책이 그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등 민·관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 장려금

1월 1일부터 50만원

여수시가 내년 1월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여수시는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 제 15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출생아 기준 첫째 아이 1162명, 둘째 아이 974명, 셋째 아이 이상 392명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여수시가 그동안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했던 지원금을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지급될 출산장려금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산생아 양육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 여수시의 주요 해결 과제인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대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06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해 셋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2011년 넷째 아이 이상 1000만원을, 올해부터는 다태아 가정에 특별 출산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150척 계류 마리나항만 2018년까지 건설

오는 2018년 여수 세계박람회장내 해상에 150척의 요트가 계류 가능한 ‘마리나’ 항만이 건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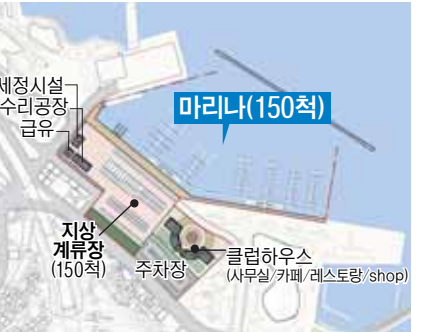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오윤열)은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으로 여수신항내 마리나 항만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에 지난 22일 본격 착수했다. 여수 마리나 항만 실시설계는 내년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여수 마리나 항만의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11월에 착수, 2018년 하반기면 마리나 시설이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 수역시설인 방파제 450m와 선양장 60m, 상·하가시설 18m 2개소가 설치되고, 기능시설인 클럽하우스, 계류시설, 요트수리공장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윤열 청장은 “여수 마리나 항만은 정부 주도로 지정·개발하는 전국 6개 지역 주요 거점형 마리나 항만 중 하나”라며 “여수 박람회장의 수준높은

■ 여수 마리나항만 조성계획



전시공간을 활용한 ‘남해안권 국제 보트쇼’ 개최·지원은 물론 박람회장 사후활용 일환으로 고급 해양레저인력 양성시설로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항만청은 여수 마리나항만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 약 800억원 가운데 수역시설 조성은 국비로, 기능시설은 민간투자자 총당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부정부패 척결위해 ‘감사사례 편람’ 펴내

여수시가 민선 6기 최대 현안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근 ‘감사사례 편람’을 펴냈다.

여수시는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기관별 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감사사례 편람은 잘못된 관행과 규정위반, 행정 개선 등의 방향을 속속들이 제시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되도록 했다. 또 인사와 예산회계, 보조금, 도시토목 등 총 16개 분야 126건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사적 사례 103

건, 감사장제 관련 규정 등 여러 행정분야를 쉽게 풀이 기록했다. 시는 각 실과 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편람을 배부, 공직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장기생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사례편람 발간으로 시 공직자 청렴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정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정렴도시 여수’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복신	675-5530
복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옹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흥	222-1896
중흥	224-6604
진월	673-1600
진월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since 195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 062 227-9600 | 신문구독 _ 062 220-0551 | 예향구독 _ 062 220-0550